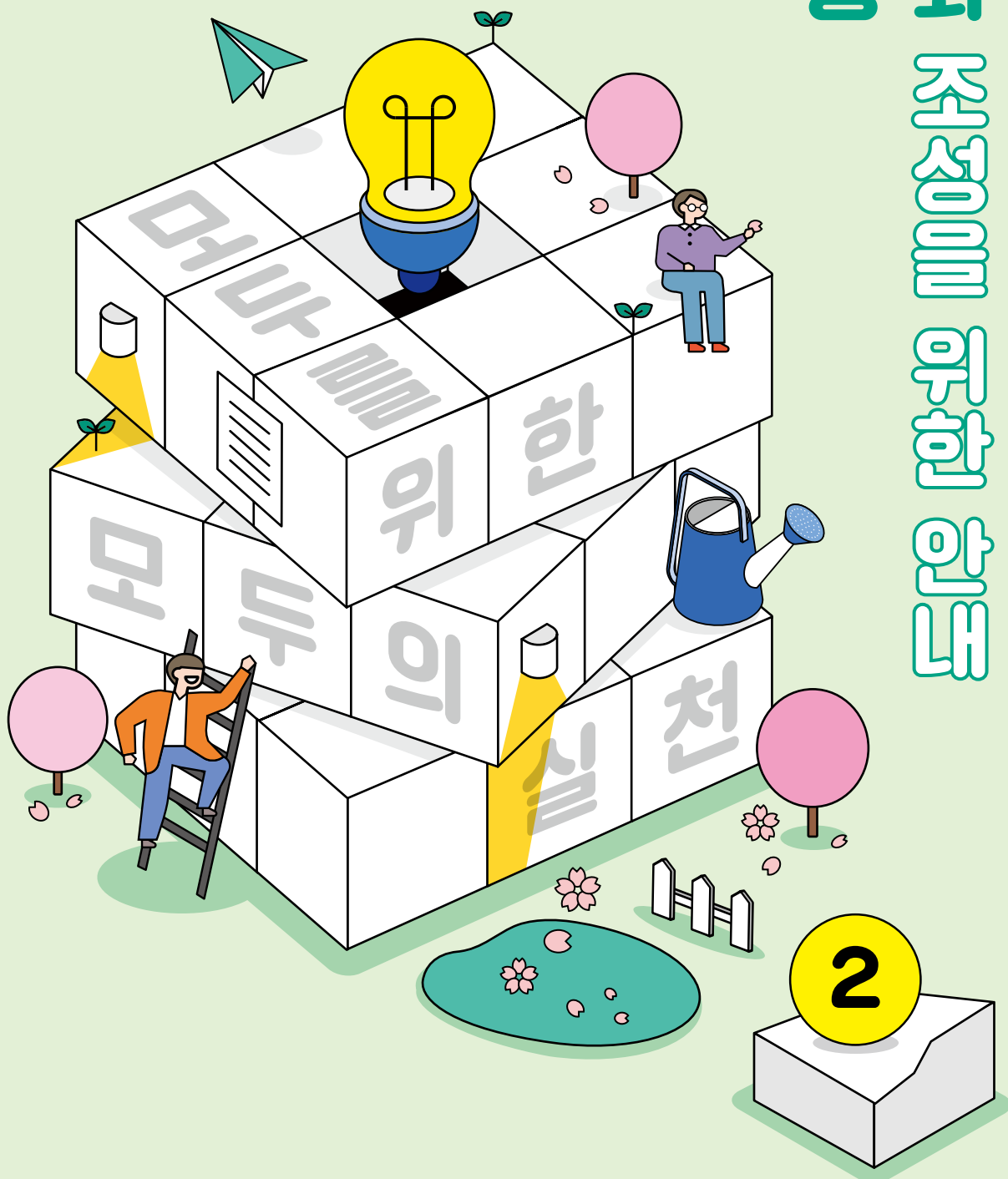


## 수업

양성평등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 학교문화 조성 양성평등 을 위한 안내



# 학교문화 양성평등 조성을 위한 안내

## 수업

양성평등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 2권. 수업

양성평등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 CONTENTS



1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03

2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15

3

양성평등수업은  
어떻게 설계해 실행하면  
좋을까요?

18

4

성인지관점에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선별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25

###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 현직 교원이 들려주는 학교현장 이야기

#### 초등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사례

36

- 양성평등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위하여
-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수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중등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사례

46

- 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 모임의 시작!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 드라마'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 1.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가르치는 방식은 ‘교과에서 다루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루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은 수업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권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권 법·정책의 2번 문항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1권이 ‘양성평등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권에서는 ‘양성평등’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양성평등한 교육, 즉 학교의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조화 하는 일은 양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세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면, 언어가 숨기고 있는 생각과 관점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언어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이 성차별적인 발언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토론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이미 체득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양성평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도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초·중등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교사가 꼭 알아 두어야 할 핵심 개념들을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 ①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이란?

‘섹스’라는 말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비롯되었다. 태초에 인간은 남녀가 한몸을 이룬 모습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신들에게 도전하자 제우스는 인간에게 벌을 주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간을 두 조각으로 나눈다. 그래서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가 되었다. 플라톤은 원래 하나였던 몸이 갈라졌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분리된 생물학적 성을 가리켜 ‘섹스(sex)’라고 한다. 이는 분할을 의미하는 라틴어 ‘sexus’에서 나온 말이다(강준만, 2014).

## ② 젠더(gender)란?

젠더의 기원은 라틴어 계열에서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를 분류하는 문법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정신의학자나 의료진들이 섹스와 구별되는 젠더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시기에 섹스는 생물학적·의학적인 것이었고 젠더는 순전히 심리학적인 범주였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차용해 발전시키게 된다. 섹스가 생물학적 성차로서 단순히 남녀를 구분하는 자연적·중립적인 차이라면, 젠더는 차이에 서열과 위계를 담은 차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성차라고 개념을 정립했다. 이러한 젠더 개념은 이후 사회적인 상식으로 자리잡았다(김은실, 2008).

## ③ 여성혐오(misogyny)란?

단순히 ‘여성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모든 생각을 뜻한다. 최근 등장한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가 아니라 여성을 억압했던 오랜 역사가 응축된 개념이다. 여성혐오는 차별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일상에서 여성혐오는 부정, 폭력, 성적 대상화, 온정(기사도)의 형태로 표현된다.

## ④ 가부장제(patriarchy)란?

좁은 의미의 가부장제는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가족제도를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제도화하여, 사회 주요 제도의 권력을 남성이 가지며, 여성이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체계를 가리킨다. 가부장제를 간단히 말하면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 혹은 남성 중심 사회를 뒷받침하는 사회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 ⑤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이란?

사회적 위치가 중심이나 주변이냐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관점은 달라진다. 법, 제도, 지식, 언어, 관습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것이라 기대되지만 사실은 특정 집단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보완책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성인지(젠더 관점)란 “법이나 제도가 특정 성별의 요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주변 집단의 경험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인식”이며, “법령, 정책, 관습,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다. 한마디로 성인지란 남성 경험에 가려 드러나지 않고 무시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지식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성인지 감수성은 폭넓게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별 불균형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양성평등교육 : 수업 기획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방식은 '교과에서 다루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루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일부 단원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하려면 따로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이나 양성평등 주간에 맞추어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은 수업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학생들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도 용이하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양성평등교육이 가능한 수업방식들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초·중등 학교급별 교수학습자료를 발간했다. 이를 참고하여 교사들은 교과교육 내에서 양성평등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수업을 기획할 수 있다.



## 수업 기획 사례 1 : 초등 1~2학년 대상 교과 연계 양성평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놀이의 형태로 직업과 가족 내 역할을 다루면서 아이들이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아보며 아이들이 편협한 생각에 갇히지 않고 가족 형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 제목 : 남자 일 여자 일 따로 있나요?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통합(가을)
- ◇ 관련 성취기준 : [2줄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성역할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 직업 탐구 활동하기
- ◇ 학습목표 : 직업에 대한 남성 여성 고정관념을 벗어나 직업 관련 놀이를 할 수 있다.

## 제목 : 가족 역할놀이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통합(가을)
- ◇ 관련 성취기준 : [2줄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역할놀이 하기
- ◇ 학습목표 : 양성평등한 관점으로 가족 구성 역할놀이를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 초등학교>

## 수업 기획 사례 2 : 초등 3~6학년 대상 교과 연계 양성평등교육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의 경우 직업·집안일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일상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현상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심화했다.

**제목 : 당신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사회(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 ◇ 관련 성취기준 :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와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차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역할놀이 하기
- ◇ 학습목표 : 어떤 차별적 발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제목 : 사회 변화와 한국인의 삶**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사회(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 수학(막대그래프)
- ◇ 관련 성취기준 : [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4수05-01]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그래프나 막대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통계로 보는 한국인의 삶의 변화 탐구하기
- ◇ 학습목표 : 사회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통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제목 :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국어
- ◇ 관련 성취기준 :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탐구한다.  
[6국04-04]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전통적인 관용 표현이나 속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 찾기
- ◇ 학습목표 : 전통적인 관용 표현이나 속담에 반영된 성차별 의식을 찾고 비판할 수 있다.

출처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 초등학교>

## 수업 기획 사례 3 : 중학생 대상 교과 연계 양성평등교육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일·가정 균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고 대안을 찾는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중학생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주제로 한 교육내용,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할 때 편협한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더했다.

**제목 : 우리 가족 갈등 탈출기**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기술·가정(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 ◇ 관련 성취기준 : [9기가01-06]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여 가족 간 갈등 해결 방안 찾기
- ◇ 학습목표 :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 역할극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제목 : 함께 그리는 양성평등 세상**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도덕(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 ◇ 관련 성취기준 : [9도03-01] 인간 존엄성,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보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하기
- ◇ 학습목표 : 양성평등 신문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할 수 있다.

**제목 : 나의 꿈, 나의 길! 양성평등한 진로 선택**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진로활동(진로탐색활동)
- ◇ 관련 성취기준 :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세계의 특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체험한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성별에 따라 편향된 직업을 조사하고 양성평등한 진로 선택하기
- ◇ 학습목표 : 성별에 따라 편향된 직업을 조사하고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자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출처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 중학교>



## 수업 기획 사례 4 : 고등학생 대상 교과 연계 양성평등교육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는 달리 교과 선택권이 있지만 양성평등교육을 공통과정이나 일반선택과목에서 다음과 같이 시도할 수 있다.

## 제목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사회문화(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 ◇ 관련 성취기준 :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례와 그 해결방안 찾기
- ◇ 학습목표 : 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례와 그 사례들에 관한 토의를 하면서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제목 : 양성평등한 표현 만들기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언어와 매체(언어생활의 성찰)
- ◇ 관련 성취기준 : [12언매04-02]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성차별적 표현 바르게 고치기
- ◇ 학습목표 :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을 알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 제목 : 외모 지상주의 비판

- ◇ 관련 교과목(단원명) : 자율활동(창의주제활동)
- ◇ 관련 성취기준 : 공감, 배려,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 학습주제 수행기준 : 외모지상주의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변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내면의 장점을 담은 초상화 그리기
- ◇ 학습목표 : 외모지상주의가 제시하는 획일적 아름다움을 비판하고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다.

출처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 고등학교>

교과 연계한 양성평등 수업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연구·중점학교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 시범·중점·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성평등 연구학교들의 경우 교사들(일부 혹은 전체)이 동아리나 협의체 형태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양성평등교육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했다. 그리고 직원회의나 연수를 통해 학습 결과를 전체 교사들과 공유했다.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했다. 내용과 삽화에 숨어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는 한편, 교과 영역 안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할 만한 지도 요소를 뽑아냈다.<sup>01)</sup>

양성평등 연구학교는 특정 교과나 1회적 행사에서 벗어나 학년별로 매 학기당 15차시 이상의 '협력 프로젝트 수업'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과 수업을 통합하여 주제 중심으로 양성평등수업을 운영하는 등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에서 양성평등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사들에게 보여 준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도 참조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 기존 진로교육용 콘텐츠를 성인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초등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카드와 활용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거나<sup>02)</sup>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다양한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사회, 가정(보호자)과 협력하여 일반적으로 성별화되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여자소방관, 남자간호사)들을 초청해 진로 멘토링을 진행한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01) 태화초등학교(2019)는 2015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도덕, 사회, 국어 국정교과서를 모니터링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의 <양성평등 선도·시범학교 운영 사례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례집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02) 흥덕초등학교(2019년도)

## 수업 기획 사례 5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교육

최근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천되는 수업 모델은 ‘온 작품 읽기’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인 온 작품 읽기는 국어 시간에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수업을 말한다. 문학작품을 함께 읽으며 ‘작품 속 인물에 공감하기’를 배우는 것은 시민성의 핵심 능력인 공감적 상상력을 키우는 일이다. 학생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에 공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자기다움’을 인식하는 배움의 과정이다. 또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상대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 없이 선불리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질 법한 감정과 소망과 욕망을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적 상상력, 혹은 서사적 상상력이라고 한다. 공감적 상상력은 무비판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모든 책임 있는 판단 행위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다. 어떤 행동의 의미를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보기 전에는, 어떤 말의 의미와 중요성을 화자의 역사와 사회라는 맥락에서 포착해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마사 누스바움, 2018). 공감력은 상상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미를 판독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토대다. 성인지 감수성은 약자의 경험과 관점을 지식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뛰어날수록 성인지 감수성도 민감해질 가능성이 크다.



## 온 작품 읽기와 양성평등교육 통합 수업의 목표와 의의 ①

## 6학년 아이들과 읽은 《몽실 언니》(권정생)

“왜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는지, 표면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더 앞세우고 있는 듯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치듯 훑어 읽는 기사나 한쪽으로 편향된 인터넷 동영상이나 아니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그런 점에서 시대의 문제를 온전히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 낸 문학작품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로 써 보는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잘 쓰인 문학작품은 한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내면과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학년 아이들과 《몽실 언니》를 읽으며 전쟁의 상처와 지독한 차별 속에서 여성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세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마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며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장 약한 이들이 ‘이만하면 살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소소하지만 간절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조○○ 선생님(○○초등학교)

\* 출처 : [초등 고학년]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책 읽기 2편 : 몽실언니 (젠더온, 2020)

## 온 작품 읽기와 양성평등교육 통합 수업의 목표와 의의 ②

## 5학년 아이들과 읽은 《수상한 아이가 전학왔다》(제니 립슨)

“우리는 모르는 낯선 대상에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를 알게 되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되어 줄 수 있지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 아파하며 나라면 어떻게 할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5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상한 아이가 전학왔다》를 함께 읽으며 ‘타인을 대하는 열린 태도’를 배워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 왔던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반전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에 관해 물었던 그 질문이 과연 문제가 없는 질문이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교실 속에서, 바로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질문 찾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고 실천을 이어 가고 싶습니다.”

진○ 선생님(○○초등학교)

\* 출처 : [초등 고학년]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책 읽기 1편 : 수상한 아이가 전학왔다 (젠더온, 2020)



## 온 작품 읽기와 양성평등교육 통합 수업의 목표와 의의 ③

4학년 아이들과 읽은 《말라깽이 챔피언》(레미 쿠르종)과  
《진정한 챔피언》(파암 에브라히미)

“4학년이 되면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남자 어린이들보다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 변화가 두드러지지요. 몸의 성장과 더불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괜히 다가가 장난을 치거나 때리고 도망을 가거나 웃으며 쫓아 가거나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의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날씬하네, 똥똥하네, 예쁘네, 못생겼네 하며 외모 품평을 하지요. 여자 어린이들도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화장도 하고 싶고 자신의 외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업은 여자 또는 남자가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틀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내가 나로서 옳게 서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신과 타인을 서서히 여성과 남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주제의 수업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여성과 남성이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범과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본래 모습, 나다움을 찾아 떠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선생님(○○초등학교)

\* 출처 : [초등 중학년]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책 읽기 1편 : 말라깽이 챔피언과 진정한 챔피언 (젠더온, 2020)

#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을 오해하고 잘못된 교육을 펼치고 있는 현장도 꽤 많습니다. 왜곡된 양성평등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양성평등교육을 ‘자기계발교육’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여자가 남자처럼 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불평등과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관점이자 세계관입니다.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해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이 자기계발의 방편으로 바뀌어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경쟁·승부·우열이 작동 원리인 사회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 양성평등교육, 자기계발을 위한 것 아닌가요?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은 왜 문제인가? 많은 교사들이 그 답을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남자다움·여자다움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찾으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당수의 양성평등교육이 놀랍게도 양성평등 담론을 자기계발의 논리로 수용하고 있다.

물론 ‘나다움’을 찾는 일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성·남성이라는 젠더 규범의 틀에 갇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규범이 제한하는 틀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일에 몰두하느라 사회구조에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된다. ‘자기다움’을 찾는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생각, 혹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생각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구조의 결함을 보는 대신 자신의 결함을 보게 하고, 사회 비판을 자기비판으로 대체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개인에게 달렸다면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그 개인에게 있다. 누구도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박약이나 자신감 결여가 문제라고 강조된다.

양성평등은 불평등과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관점이자 세계관이다.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해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이 자기계발의 방편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양성평등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기역량 강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빠져 있다.

양성평등교육을 개인적 인생 계획과 개인적 성취를 복돋우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이를 막으려면 초점을 다시 개인에서 사회구조로 이동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되 우리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현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의지를 동원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물론 우리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자신감이 전부는 아니다.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 양성평등교육, 여자도 남자처럼 되기 위한 것 아닌가요?

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론이 초점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면서 생겨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남성의 성역할과 여성의 성역할 위계를 비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논리라는 데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대칭 관계가 아니라 상·하/우·열이라는 위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양성평등은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동안 우리가 여성정책과 관련해 사용한 ‘여성발전’이나 ‘여성개발’이라는 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상당 부분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나 여성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양성평등교육을 수행하면서 남성만이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던 가부장적 구별과 제한을 없애자, 여성들도 남성적 가치, 남성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현실은 ‘초남성화’된 세상이 되었다. 조한혜정 교수는 이를 두고 어느 인터뷰에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면 딸들이 ‘아빠처럼’ 된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sup>03)</sup> 여성학자 정희진은 여성이 남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의 평등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도 수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러한 의미의 평등은 특히 기득권 세력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강조한다. 양성평등은 경쟁·승부·우열이 작동 원리인 사회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하는 것은 남편이고, 돌봄이나 육아는 아내가 어떻게든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 노동자상(노동자=아내 있는 남성)이 뿌리 깊다. ‘워킹맘’이라는 말에도 남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건 기본 값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굳이 ‘워킹’과 ‘맘’을 붙여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 시선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일과 가정을 무리 없이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03) [한겨레가 만난 사람]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면 여성들이 ‘아빠처럼’ 된 건 아닌가” <한겨레>, 2014.02.24.

# 양성평등수업은 어떻게 설계해 실행하면 좋을까요?



## 3. 양성평등수업은 어떻게 설계해 실행하면 좋을까요?

양성평등교육의 특성은 지식 전달보다는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신념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종종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수업 설계 방향은 양성평등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성찰성-통합성-개방성-실천성'이라는 요소들을 적용해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배려하는 사고, 협력적 사고를 길러 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참여자가 선호하는 동영상과 같은 방법도 적극 활용하고, 수업의 목적과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마음 열기, 필요 느끼게 하기, 개인적인 책임감 키워 주기 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성평등교육의 특성

양성평등교육은 내면화된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적 사고·행동방식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이다. 양성평등교육은 젠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관점의 변화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지식 전달보다는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양성평등 관련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의식 변화는 우리 내면의 고정관념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탐색적·성찰적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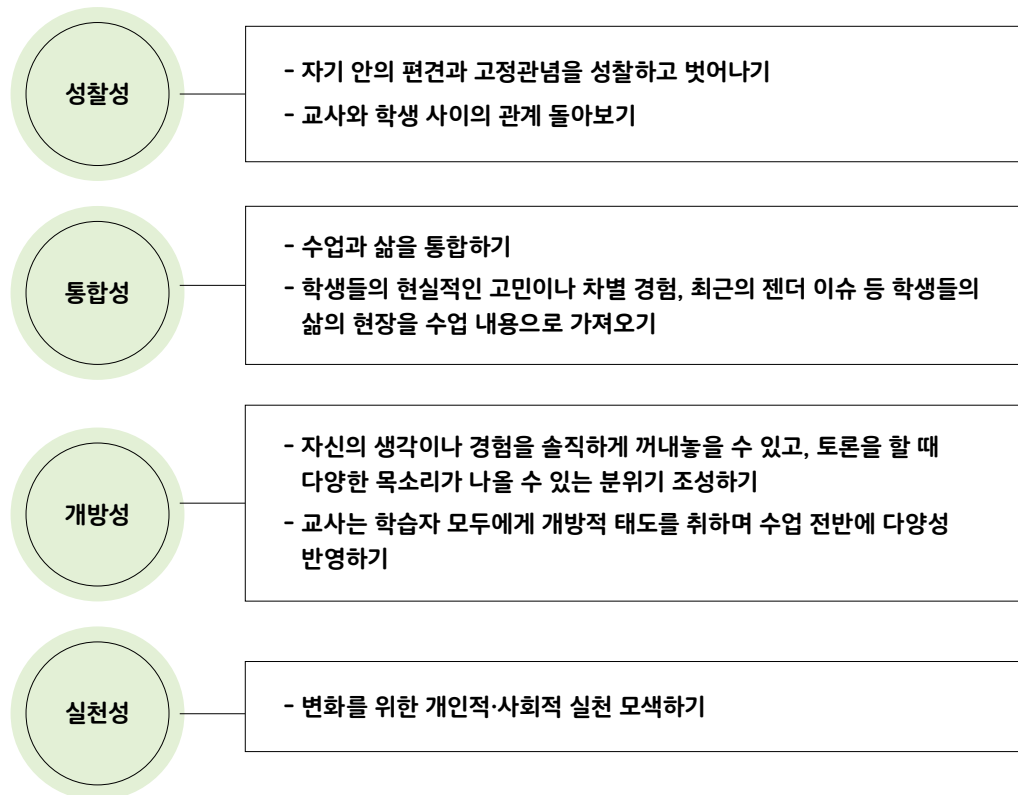
둘째, 양성평등교육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신념에 도전한다. 사람들은 환경 의존적이다. 우리는 대개 주변 환경에 맞추어 살아간다. 환경에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코드'가 담겨져 있다.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선배, 후배 등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환경 속 코드에 동조하여 특정한 삶의 방식을 당연시한다는 의미다. 양성평등교육은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조해 왔던 환경의 코드와 거리를 두도록 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주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는 종종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양성평등교육을 ‘남성혐오’ 또는 ‘여성우월주의’로 이해하여 교육에 반감이나 불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저항감이 더 클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수업 참여 태도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교육은 교사의 일방적 강의는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참여와 발견을 최대한으로 강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존의 교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참여적 접근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양성평등교육은 그 방법에 있어 대화와 참여, 그리고 경험을 중시해 왔다. 강의 이외에 토의, 역할극, 공동체놀이, 글쓰기 등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개발했으며 학습자들의 관심사와 경험을 교육의 콘텐츠로 탐색하고 수용했다.

### 양성평등수업 설계 방향

앞에서 제시한 양성평등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양성평등수업은 다음의 요소들을 적용해 설계해야 한다.



### 양성평등교육 설계를 위한 네 가지 키워드

10대의 아이들이라면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젠더 이슈로 남녀가 대립하고 갈등한 경험을 대체로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젠더 이슈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주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동시에 한편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고민과 문제해결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주장과 반박을 교환하는 젠더 이슈 논쟁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정작 그 이슈들에 관해 스스로 공부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한 경험은 드물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젠더 이슈 논쟁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한 열린 토론이기보다 같은 세대 내부에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틀린 것이겠지만 내 주변 다른 친구들도 모두 나와 의견이 같으니 내 생각이 옳아’라는 식으로 기존 생각을 되풀이하고 강화하는 확증편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거나 의문시하거나 깊이 들여다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0대들은 양성평등 개념을 ‘양성’이라는 이원적 대립항 프레임과 제로섬 게임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을 한정된 파이를 두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다. 여성에게 기회가 확대되면 그만큼 남성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고,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면 그만큼 남성의 인권이 몰락한다는 식이다.

인권은 돈이나 재화와 달라서 서로 존중하면 모두 함께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한편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은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능력주의를 심어 놓았다. 개인의 실력과 노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능력주의는 출신 배경에 따라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귀족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진보적 이념으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와 반대로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뒤흔들고 차별할 수 있게 정당화해 주는 논리가 되었다.<sup>05)</sup>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제로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능력주의는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거저 얻은 특혜라는 ‘비능력적 요인’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학벌주의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의 목표는 경쟁을 해서 서열이 높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모든 종류의 서열은 쉽게 합리화된다.<sup>06)</sup> 아파트 평수가 작은 친구나 학교 성적이 부진한 친구, 나아가 다문화가정 출신의 친구를 무시하기가 쉽다.

05) 장정일, “한국 정치와 진보의 고질적 병폐 갈파하다”, <시사인> 640호, 2019.12.29

06) 박노자,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학벌 사회에서 ‘주체적 개인’은 없다”, <한겨레>, 2019.09.24



교실 속 혐오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주로 경험하는 혐오 표현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혐오, 집단 우월주의에 기반한 혐오, 다양성 거부에 기반한 혐오, '무임승차론'에 기반한 혐오다.<sup>07)</sup>

학습자인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배려하는 사고, 협력적 사고를 길러 주는 수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양성평등교육 설계를 위한 네 가지 키워드

#####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주는 교육

아이들이 삶에서 접하는 정보와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편견이나 선동에 맞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 준다.

##### 창조적인 사고를 길러 주는 교육

아이들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대안적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격려한다.

##### 배려하는 사고를 길러 주는 교육

교실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과 지성을 결합시켜 준다.

##### 협력적 사고를 길러 주는 교육

질문의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 교육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아이들이 선호하는 매체는 단연 동영상이다. 수업 도입부에 교육주제와 관련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영상의 내용은 수업의 목적과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부합해야 한다. 영상의 분량은 5분 이내가 적당하다. 만약 영상의 분량이 길면 편집하거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로 만들어 이용하면 전달력이 높아진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습방식은 토론과 퀴즈 등 참여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토론을 선택할 경우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다른 것'과 '틀린 것'의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무비판적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이 틀린 것마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의견은 있다. 상식적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의견'과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급 출석부 번호를 정할 때 남학생부터 먼저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각급 학교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어느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기존 관행대로 하자는 응답이 더 높아 예전 방식을 유지했다.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더 정의로운가를 따져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토론할 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의견은 그저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만 모여 토론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을 단순히 공유하는 수준의 토론이라면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존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토론할 수 있도록 모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07) 정재원, '혐오의 시대, 여성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수도권 남녀공학대학 여성학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세대 간 젠더 간 소통을 위한 공감 토론회, 한국여성연구소, 2019.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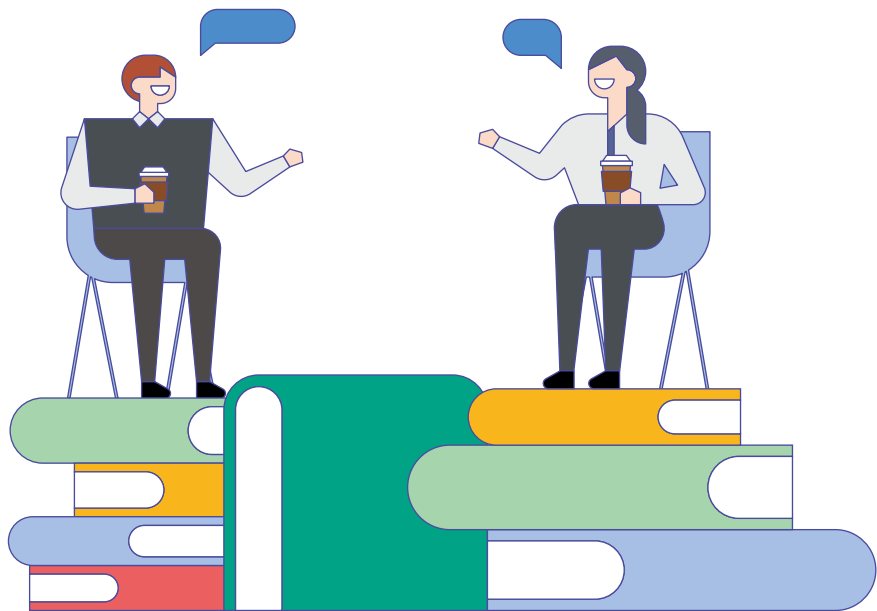
##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

양성평등수업의 성패는 학습자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는다.** 양성평등수업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양성평등수업이 일방적으로 교사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수업 첫 시간에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감정 상태, 기대, 우려 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 좋다. 학생과 학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대화를 촉진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둘째, 필요를 느끼게 한다.** 양성평등수업에 대한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본 수업이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활이나 미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수업을 할 때마다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한다.

**셋째, 개인적인 책임감을 키워 준다.** 주제 설정이나 수업 진행에 있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독서·글쓰기, 자료 조사·발표 등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다. 또한 수업에서 다루는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평가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 성인지관점에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선별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 4. 성인지 관점에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선별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모든 교육은 양성평등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다루는 콘텐츠에 성차별주의를 강화하는 편견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찾아내려는 마음과 이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콘텐츠를 선별하고 구성하기 위해 수업 콘텐츠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학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육 콘텐츠로 인해 시민들의 지적을 받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으로 실시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가 여성혐오적이며 외모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sup>08)</sup>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 대신 받은 것은?>이라는 제목의 교육용 애니메이션이었다. 백설공주가 왕비가 건네 준 스마트폰에 빠져 미모를 등한시한 결과 못생겨진다는 내용이다.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못생겨지고, 그럼 주변 남자들이 다 싫어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난쟁이들은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왕자가 거울을 보여 주자 백설공주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공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처럼 미모를 관리하며 빵을 굽기 시작한다. 왕자는 백설공주의 다시 돌아온 미모를 칭찬하며 공주에게 입을 맞춘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라지만, 내용이 성별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심각하게 기대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역시 여성에게는 외모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지 않을까? 남성은 해결사여야 한다는 편견을 강화시키지 않았을까?

어떤 주제를 다루든, 모든 교육은 양성평등한 교육이어야 한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다루는 콘텐츠에 성차별주의를 강화하는 편견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찾아내려는 마음과 이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은 필수적인 자질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능력이 되었다. 왜냐하면 교사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교사에게 더 높은 기대를 품는다.

##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업 콘텐츠를 선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양성평등 관점에서 콘텐츠를 선별하고 구성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먼저 수업 콘텐츠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업 콘텐츠를 선별할 때 점검해 보세요!

- ① 여성다움·남성다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들어 있지 않나요?
- ②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대표하지 않도록 남녀 비율과 연령 구성을 적절하게 했나요?
- ③ 성차별적 표현이나 외모지상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④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 ⑤ 피해를 불필요하게 선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지 않나요?
- ⑥ 누구의 입장에서 구성되었나요?
- ⑦ 내용이 학생의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가요?
- ⑧ (성차별주의 이외) 다른 편견이 강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드라마·영화·광고·기타 동영상을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경우에는 특히 여성과 남성의 재현방식 분석, 서사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부 홍보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시가 10~60대까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알리기 위해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모티브로 복지정책 홍보물을 제작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누리꾼들은 SNS에 이 홍보물을 찍어 올리며 '남성이 등장하는 홍보물은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면서, 여성이 등장하는 홍보물에서는 육아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보물의 색상 역시 논란이 되었다. 여성을 모델로 내세운 홍보물은 모두 분홍색 계열을 사용했고, 남성의 경우엔 파란색을 사용했다. 여성이 모델인 포스터에만 웃는 얼굴과 하트 이모티콘이 들어간 것도 문제였다. 결국 ○○시는 포스터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08) <경향신문>, 스마트폰 중독 땀 못생겨진다?, 2020.08.29.

다음은 한 부처에서 제작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홍보하는 포스터다. 청년기 자녀에게 직업교육과 취업연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경찰·군인·엔지니어, 여자는 돌봄·예술 이런 식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홍보물 역시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을 반영하고 있다. 시대는 달라졌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런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홍보물에 실망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경찰청은 여경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포순이'의 모습을 일부 변경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속눈썹을 없앴다. 귀를 감추던 단발머리는 귀 뒤로 넘겼다. 기존 포순이 모습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포순이와 포돌이의 신체적 특징에는 각각 의미가 있다고 한다. 큰 눈으로 전국을 살피고, 큰 머리를 써서 선진 경찰이 되고, 큰 귀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어 각종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이제 포순이도 포돌이와 함께 큰 귀를 통해 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수집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포순이는 여성 경찰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경찰 근무복은 셔츠에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포순이가 치마를 입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착취·데이트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동영상 속 카메라의 시선을 점검해야 한다.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를 응시하는 방식이나 성희롱을 암시하는 장면을 다루는 방식이 학습자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지 않았는지, 성희롱 피해 장면을 '성적인 느낌'으로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카메라의 시선이 가해자의 관점에서 촬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은 모 방송에서 제작한 성희롱예방교육용 영상 속 장면인데, 카메라의 시선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도 부득이하게 영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피드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학생들이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문제적 장면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를 응시하는 시선이나 가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우리 문화에 깊게 각인되어 있어,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영상물조차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콘텐츠에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이 들어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전제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성차별주의 외에도 특정 인종, 장애, 연령, 가족형태, 지역, 종교, 계층, 직업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있는지 인권 관점에서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양성평등·인권 분야 교과서 검토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교육부, 2020)

[참조] ‘양성평등·인권’ 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

\*출처 : 교육부, <2020년도 교과서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자료집>

‘양성평등·인권’ 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		
1. 본문 (제재와 내용) 검토기준	1.1. 편견과 왜곡	1.1. 특정 성, 인종·종족, 장애, 연령, 가족 형태, 지역, 종교, 계층, 직업에 대한 편견과 왜곡 배제
	1.2. 고정관념과 획일화된 정체성	1.2. 특정 성, 인종·종족, 장애, 연령, 가족 형태, 지역, 종교, 계층, 직업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 배제, 특정 집단을 고정되고 획일화된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내용 배제 * 성별에 따라 고유의 성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재와 내용 배제 : 장애인, 노인의 의존성, 수동적 이미지; 빈곤 계층의 무능력 등
	1.3. 다양성과 균형성	1.3. 제재와 내용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해 중립적 이거나 균형 있게 서술 *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노인·아동, 도시와 농산어촌, 인종·종족 등의 다양성 고려(예를 들어, 역사적 인물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충분히 제시) * 비서구 지역(아프리카, 이슬람권 등)에 대한 중립적 서술
	1.4. 표준과 정상성	1.4. 특정 집단의 삶의 양식을 표준으로 삼거나, 정상/비정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사회적 활동 간 위계를 설정하여 특정 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을 폄하하지 않도록 유의(예를 들어, 돌봄보다는 경제 활동을 우위에 두지 않도록 함)
	1.5. 외모 평가	1.5. 특정 외모나 외양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설정하거나, 표준적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외모를 평가하는 제재와 내용 배제 * 큰 키, 가쁜 얼굴, 오뎅한 코, 하얀 피부를 미인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나 여성만이 외모·외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
2. 사진 또는 심화 검토 기준	2.1. 성별 이미지	2.1.1. 남녀 등장 빈도의 균형성 * 단원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등장인물이 다수인 페이지의 경우에는 남녀 등장 빈도의 균형성 유지 * 등장 빈도의 균형은 기계적인 양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종속적 역할(의사결정 역할), 역할 및 이미지의 다양성(남성의 일, 여성의 일을 구분하지 않음)에 근거한 남녀 등장 빈도의 균형을 의미
		2.1.2. 남녀 활동 공간과 사회적 역할 및 행동 양식의 적정성 2.1.2.1. 남녀 활동 공간과 사회적 역할 및 행동 양식의 적정성 * 남녀의 활동 공 간을 남성은 공적 영역,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분리 배치하는 방식 지양 2.2.2.2. 남녀의 활동 내용 분리 여부 *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기는 활동(요리, 설거지, 육아, 배려하기 등)을 남성이 하거나, 남성의 일로 여기는 활동(수리하기, 대형 장비·도구 활용하기, 지시하거나 주도하기, 축구 등)을 여성이 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표현
		2.1.3. 성별 직업(군)에 대한 편견 여부 * 의사, 경찰관, 과학자, 교사, 간호사, 운전사, 농부, 가사활동 종사자, 각종 도우미 등 직업 표현에서 남녀의 고른 배치
		2.1.4. 남녀의 주도성 검토: 의사결정 및 주도적 역할에 성별 균형 배치 * 가족 내 연장자, 학교 관리자,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의 고위직,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자 등 적극적 역할 수행에 남녀의 고른 배치
		2.1.6. 남녀 행동 표현의 전형성 검토: 동작의 크기, 손의 위치, 앉거나 걷는 자세 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나 전형적 묘사 지양 * 남성은 크게 역동적인 동작, 여성은 작고, 움츠리거나 뒤틀려가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동작으로 구분하는 방식 지양

‘양성평등·인권’ 분야 교과서 검토 기준		
2. 사진 또는 심화 검토 기준	2.2. 다문화 이미지	2.2.1. 다문화 구성원의 등장 빈도: 교실, 학교 및 다수 구성원이 등장하는 부분에 다문화 구성원을 포함
		2.2.2. 다문화 구성원의 다양성 검토: 다문화 구성원의 인종, 성, 연령, 직업 및 가족 형태 등을 고르게 표현 * 동남아시아-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의 도식화 탈피
		2.2.3. 다문화 구성원의 주도성 검토: 다문화 구성원을 문제를 일으키거나 외부 지원이 필요한 부정적, 의존적 존재가 아닌, 학교나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직업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의 주체로 제시
		2.2.4. 다문화 구성원 간 차별적 묘사 여부: 다문화 구성원의 인종, 국적, 성별 배경 등에 따른 우열의 사회적 위계 설정 지양 * 서구 사회-백인-남성의 우월적, 주도적 역할 vs 비서구사회-비백인-여성의 낮은 지위와 수동적, 의존적 역할 구도 탈피
		2.2.5.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묘사 배제 *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외국어를 잘 한다거나, 한국어를 못한다는 고정관념 등
	2.3. 장애 이미지	2.3.1. 장애인의 등장 빈도 검토: 교실, 학교 및 다수 구성원이 등장하는 부분에 장애 학생 및 장애인 포함
		2.3.2. 장애 유형 및 장애인의 다양성 검토: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 이외의 다양한 장애 유형 표현 및 장애인의 성, 연령 등을 고르게 표현
		2.3.3. 장애인의 주도성 검토: 장애인을 의존적,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나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직업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적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의 주체로 제시
	2.4. 노인 이미지	2.4.1. 노인의 등장 빈도: 다수 구성원이 등장하는 부분에 노인을 포함
		2.4.2. 노인의 활동 공간 배치 검토: 노인의 활동 공간을 주로 가정 영역, 또는 농촌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영역 및 도시 공간에 고루 배치
		2.4.3. 노인의 다양성 및 주도성 검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지팡이, 휠체어)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을 탈피하여, 노인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능력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직업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남녀 노인의 모습을 고루 제시 * 여성노인-신체적으로 쇠약-주변의 지원을 받는 의존적 존재 등 전형적 묘사 탈피
	2.5. 가족 이미지	2.5.1. 가족 형태의 다양성 검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 모델 이외에 3세대 가족·한부모 가족·조손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 핵가족의 경우에도 부모와 아들, 딸로 구성된 4인 가족 이외에 자녀 수 및 성별을 다양하게 제시
		2.5.2. 가족 구성원의 역할 검토: 가족 내 구성원의 역할에서 양성평등적·수평적 관계 표현 * 가족 내 성별 역할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 노동의 이분법적 구분 탈피, 부모와 자녀의 수평적 관계 고려
	2.6. 지역 이미지	2.6.1. 서울 및 수도권, 도시 편중 여부
		2.6.2. 지방 및 촌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2권 수업

양성평등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일상 속 나의 교육활동을  
점검해 봅시다.



- ① 생물학적인 성(sex)과 젠더(gender)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 ② 일상 속에서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 ③ 일상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별 불균형을 민감하게 감지해 낼 수 있나요?
- ④ 성인지 감수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나요?
- ⑤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정규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직접적으로 양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나요?
- ⑥ 양성평등교육을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 ⑦ 양성평등교육을 설계할 때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요?
- ⑧ 양성평등교육을 설계할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나요?
- 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의견은 그저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알려 주고 있나요?
- ⑩ 아이들이 선호하는 매체와 학습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 ⑪ 효과적인 양성평등 수업을 위해 대화와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나요?
- ⑫ 수업에서 다루는 콘텐츠에 성차별주의를 강화하는 편견이 들어 있지는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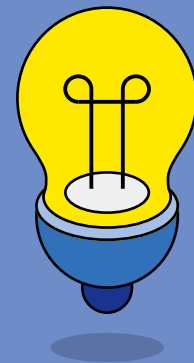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강준만,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인물과사상사, 2014.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초등학교〉, 2019.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중학교〉, 2019.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인권교육: 고등학교〉, 2019.
- 교육부, 〈2020년도 교과서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자료집〉, 2020.
- 권수현, 〈EBS 평등채널e 활용 가이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 김은실,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여성주의 학교 '간다'》, 지성사, 2008.
- 레나타 살레츨,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후마니티스, 2014.
-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 마사 누스바움, 《인간성 수업》, 문학동네, 2018.
- 벨 훅스,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모티브북, 2008.
- 오연호 기획, 《삶을 위한 수업》, 오마이북, 2020.
- 이정주 외, 〈새로운 양성평등교육 매뉴얼: 퍼실리테이터의 역량과 기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7.
- 이정주 외, 〈각급 사관학교 생도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표준 교육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6.
- 지바 마사야, 《공부의 철학》, 책세상, 2018.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사례집〉, 2015.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 양성평등 시범·선도학교 운영사례집〉, 2016.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사례집〉, 2017.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사례집〉, 2018.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양성평등 시범·선도학교 운영사례집〉, 2019.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사례집〉, 2019.
- 헬렌 그리핀, 《초등학생 성평등교육 어떻게 할까?》, 우리교육, 2020.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 현직 교원이 들려주는 학교현장 이야기

### 초등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사례

#### 양성평등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위하여

“선생님! 수업 너무 좋은데 저희 학교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양성평등수업을 위한 연수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면, 아직까지 학교가 양성평등한 조직이 아니기도 하고, 양성평등수업에 거부감을 가진 학교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교사 개인이 조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수업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마주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 성차별적인 언행이 자주 오고간다는 것입니다. 외모 평가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우 관계는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외모 평가를 지양하자’, ‘혐오 표현을 지양하자’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 어린이들도 교실 밖에서 만난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할 때에는 교실 안의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여성과 남성이 가진 ‘성차’보다는 개인이 가진 개성에 집중하자는 교사의 말을 들던 어린이들도 다른 교과 시간에 담당 교사가 ‘여자 아이들은 연약하니 남자 아이들이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해당 교사의 발언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오히려 담임교사가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을 예의 없이 가르쳤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 내용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아무런 조력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수업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도 실제로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학년과 학교 전체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규칙을 만든다면, 양성평등 수업을 하면서 관련 지식을 공유한다면, 교실 안에서만 수업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등의 문제도 여러 교사가 함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교사 또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수업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을 하면서 마주하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함께 고민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양성평등한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중요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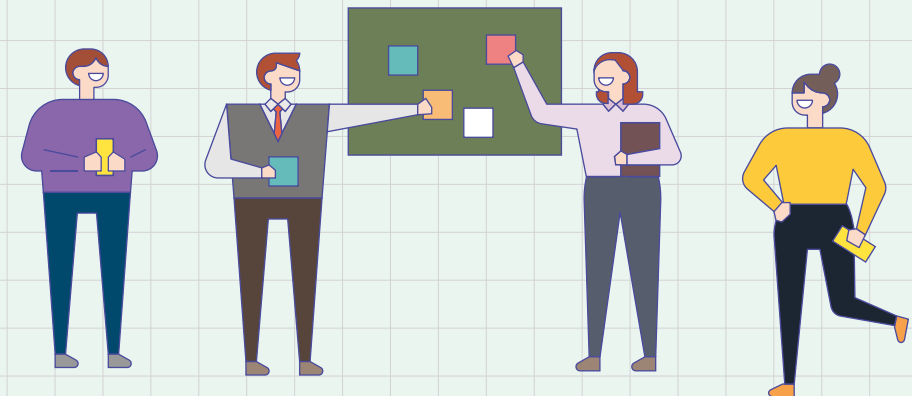
#### 양성평등한 조직,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의무 연수’를 해답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라면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의무 연수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들어야 할 연수가 너무 많다 보니, 결국 어떤 연수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사 집단은 학습하기 싫어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이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연수, 점수와도 상관없는 연수도 찾아 들으며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기감이나 비자발적인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관심 중 하나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함께하는 수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충분한 역량을 쌓아야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사가 역량을 쌓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업은 학생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 연수와는 달리 이러한 학습조직은 교사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양성평등’을 주제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꾸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거부감이 덜한 ‘동화책 교육’이나 ‘미디어 교육’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한 가지 주제로 양성평등교육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평등 의식이 높은 ‘강사’가 상대적으로 해당 역량이 부족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주고, 역량을 키워 준다는 관점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서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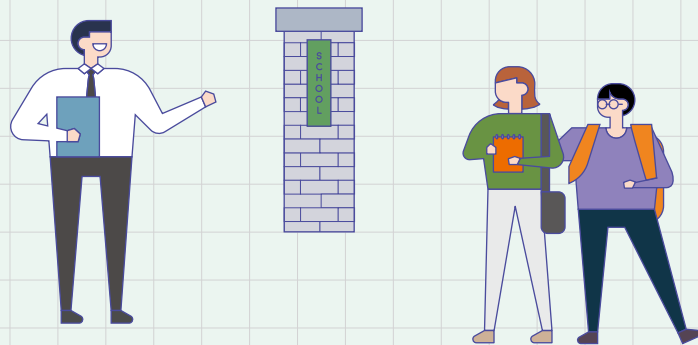
## ① 다른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자료 공유를 통한 협력

가장 단순한 방식의 수업 공유는 비슷한 진도에 맞추어 수업 자료를 제작해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자료를 공유 받는 교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반의 특성에 맞추어 수업 자료를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반 보다 조금 더 일찍 수업을 진행한 후 학년 모임 자리에서 자신이 보낸 자료에 관한 수업 후기나 꼭 필요한 팁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행이 잘 되지 않은 활동이라면 다른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한 자료에 관심이 없었던 교사의 경우에도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언을 청한 교사 또한 다른 교사의 조언을 듣고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조언해 준 당사자가 변경된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해당 활동이 끝난 후 평가를 듣고 수업 자료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 이슈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밈노동'을 주제로 생각을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화장을 하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린이들,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가지는 외모 강박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꾸밈노동을 다룬다면 훨씬 더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할 때, 더 이상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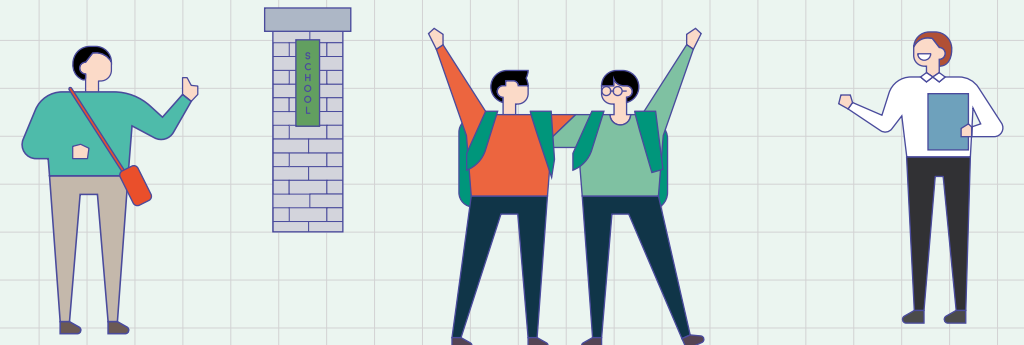


### 교사 이동을 통한 협력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자신이 만들어 낸 수업을 1년 동안 단 한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의 수업을 담임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사와 협력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수업 나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우리 반에 교과 교사가 들어오는 공강 시간을 활용해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해당 반의 담임교사에게는 함께 수업 현장에 나와 나의 수업에 관한 조언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반의 교사가 훨씬 거부감 없이 양성평등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반에서 했던 수업을 다른 반에서 한 번 더 시도하면서 내 수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들 통해 어느 정도 교사 간 '라포'가 형성되고 나면 두 번째 형태인 수업 맞바꾸기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말 그대로 교사 간 수업을 맞바꾸어서 각자의 장기가 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수업을 우리 반에서 먼저 진행한 뒤, 옆 반에서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는 날 옆 반의 담임교사가 자신의 특기 수업인 미술 수업을 우리 반에서 진행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면 교사는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과 반응 등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옆 반 교사가 한 양성평등수업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아이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교실 안에 고립되어 있었던 담임교사들 사이에 고민을 나눌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한 이후에도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특별한 거부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동수업을 통한 협력

양성평등교육을 제안하려는 교사가 메인 강사 역할을 맡고, 나머지 교사가 보조 강사 역할을 맡아 여러 반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되는 '양성평등교육'처럼 교사 개인이 혼자 하려니 내실 있게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함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의 경우 훨씬 더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세 반 정도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함께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 명이 메인 강사의 역할을 맡고 나머지가 보조 강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라 기본적인 수업 진행의 틀은 메인 강사를 맡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동수업 예시 안 : '입이 트이는 우리 학년 양성평등교육'

- ① 성역할 고정관념의 뜻을 확인하고 발생하는 성차별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 ② 학교 안의 여러 장소를 적어서 교실의 코너마다 설치하고(예: 급식실,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 내가 해당 장소에서 겪었던 성차별을 메모지에 적어 붙이게 합니다.
- ③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년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성차별적인 상황을 적어 스티커를 붙이게 합니다. 학생당 스티커를 세 개 주고 메모 하나에 하나만 붙이게 합니다.
- ④ 장소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메모를 골라 이야기의 주제로 삼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성차별이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생겼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 ⑤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차별을 만들어 내고 성차별은 결국 모든 어린이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성차별에 함께 맞서기 위한 실천 사항을 확인하고 성차별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사로 적어 봅니다.
- ⑥ 메인 강사 역할을 맡은 교사가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어른의 역할을 맡고, 어린이들이 즉흥 연기를 하면서 교사의 말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봅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다른 친구에게 배턴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즉흥 연기를 이어 나갑니다.

###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 각 장소에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성차별'이 어떤 것들일지 함께 추측해 봅시다.
- 온정적 성차별(남자는 강하니까 여자 아이들에게 양보해라)을 겪은 남자 어린이들은 성차별 때문에 여자 어린이들이 이득을 보고 자신들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 ② 함께 수업을 기획해 봅시다 - '모두의 도서관 프로젝트' 운영 사례

### 프로젝트 제안하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학기 초 교육과정을 짜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 구조만 제시했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차시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학년 구성원들이 채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수업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성도가 높은 자료라도 결국 교사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존의 자료를 바꾸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한 명의 교사가 수업 자료까지 완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경우,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제안한 한 명의 교사가 수업 자료를 설명하고 다른 교사들이 그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럴 경우 리드하는 역할을 맡은 교사는 계속해서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높은 업무 부담을 지게 되어 힘들고, 따라가는 역할을 맡은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남의 수업을 계속해서 소화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뼈대를 제시하고 수업 자료를 우리 학년에 맞추어 함께 제작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모두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제시안 예시

**문제 상황 제시 :** [사회 4-1-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단원을 살펴보니 지역 문제 참여에 관해 배우는데, 예시로 '주차 문제'가 제시되어 있어 학생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해 보인다.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시 :** 최근 기업 광고를 보고 어린이들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들도 쉽게 '도서 신청'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 지역의 도서관을 '차별과 편견'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하고 민주적 참여를 시도해 도서관에 차별과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책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고민할 주제

-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단원과 성취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있나?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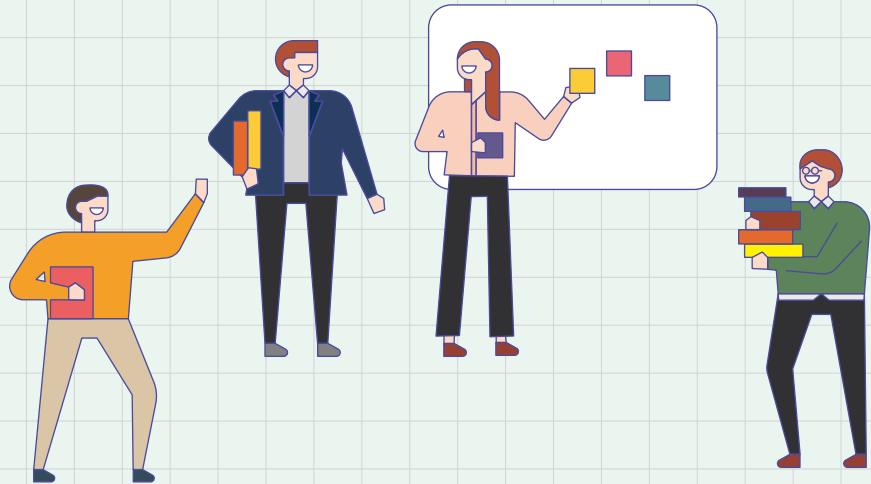
협의하며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한 협의 시간 확보

양성평등 수업은 기획도 수행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전·사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년 교사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협의 시간을 내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해 해당 프로젝트 연구 시간을 ‘연수 시간’으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약간의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관련 도서를 구입하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업 자료를 함께 제작할 수 있는 톨 이용하기

누군가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각자 수정하는 방식보다 프로젝트의 뼈대를 바탕으로 함께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를 하며 동시에 수업 자료의 편집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회의 도구(구글 미트, 줌)와 자료 편집을 위한 도구(구글 프레젠테이션 등)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한 수업 자료는 클라우드 시스템(구글 드라이브 등)으로 공유해 쉽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수업 자료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업 자료를 차시별로 정리해 교사 커뮤니티에 공유하거나 다음에 해당 학년을 맡게 될 교사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도 교사의 자산이 됩니다.



예시

재구성 전(지도서 구성 원안)				재구성
과목	단원	차시	차시 학습 주제	활동주제
도덕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3	1.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요 2.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3. 치우침 없이 바르게 판단해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아보기 ◇차별과 편견이 있으면 함께 살아가기 힘든 이유 알아보기 ◇차별과 편견이 무엇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는지 판단해 보기
사회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1	8. 우리 지역의 문제 알아보기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의 차별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 있는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지역의 도서관에 차별과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고민해 보기
수학	5. 막대그래프	2	5. 자료를 조사하여 막대그래프를 그려 볼까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가 많이 빌렸던 책 BEST 20개를 분석해 막대그래프 그려 보기
			6. 막대그래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막대그래프를 분석해 어린이들에게 어떤 차별과 편견이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로 만들어 보기
국어	8. 이런 제안 어때요	4	4-5.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 6-7. 제안하는 글 쓰고 발표하기	◇막대그래프를 분석해서 드러난 차별과 편견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도서관을 모두의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제안하는 글쓰기
사회 도덕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2	9-10. 지역 문제 해결해 보기	◇제안하는 글을 학교 도서 선정 위원회에 전달하기 ◇가정통신문으로 제작해 교장선생님과 사서선생님께 의견 전달하기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1	4.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배포해 마을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책 신청을 할 때 참고하도록 독려하기

## 협의 내용 기록하기

사전 협의의 경우 당장 다음 수업에 필요한 수업 자료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진행되며,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수업을 하면 다시 수업을 하기 힘든 초등학교의 특성상 사후 협의 과정은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후 협의야말로 ‘함께 수업을 연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의 특성과 교사의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학생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해당 자료가 학생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나누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더 나은 수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수업을 함께 고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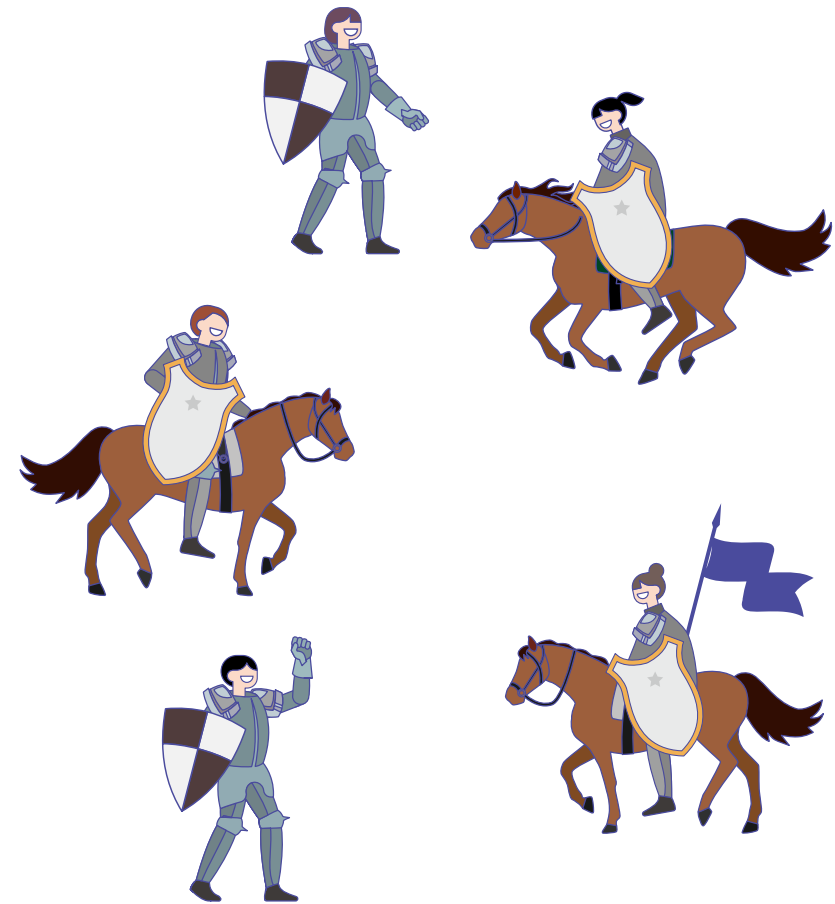
### 사후 협의 기록 예시

-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이 수적(數的)으로 비슷하다면, 그 자체로 양성평등한 도서관이라 할 수 있을까?
- 여자 주인공이 여러 명 등장하는 책의 경우 ‘인기 있는 사람 되기’나 ‘연애’를 중심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우 강화하는 형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여성 주인공인 책’으로 기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
- 그림책의 경우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물체, 상상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인공의 성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 성별이 불분명한 동물 캐릭터라고 해도 학생 대부분이 ‘여성’또는 ‘남성’으로 인식하는 캐릭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캐릭터는 보통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특정 성별의 캐릭터로 정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은 아닐까?
-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책의 특성상 캐릭터를 상징하는 색상이나 옷차림, 머리 모양 등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마무리 논의 예시

남녀 주인공의 등장 빈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성별 차별과 편견이 없는 도서관, 모두의 도서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는 성별 캐릭터도 있고, 성별이 불분명한 캐릭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의 도서관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주인공의 성별이 수적으로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는 있다. 또 성별이 불분명한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 학생들에게 성별을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진 외모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역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특정 캐릭터의 성별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을 경우 투표를 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 정말 성별이 애매한 경우는 ‘알 수 없음’으로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정 성별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드러난 캐릭터의 경우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웠다. 리본을 하고 핑크색 토끼 모양을 하고 있는 캐릭터의 경우 대부분 여성이라고 인식했지만, 어떤 학생이 그 캐릭터는 남성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오히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캐릭터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해당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현실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든다면 정말 핑크색 리본을 한 토끼 모양 캐릭터를 보고도 남자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이처럼 성별이 불분명한 캐릭터를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색상이나 옷차림, 머리 모양 등을 보고 성별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수업이다.





##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 중등 양성평등수업 기획·운영 사례

#### 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 모임의 시작!

요즘의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와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무로만 여긴다면 교사의 업무 시간을 빼앗는 시간 낭비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운영 시간과 예산을 지원하는 이 모임을 잘 활용한다면 양성평등 학교를 만들기 위한 중추 조직을 탄생시키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 한두 명만 나타나도 교사 동아리 운영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두어 명이 의기투합하여 동아리 공개 모집을 시작하면 으레 그 두 명과 연결된 지인들 두서너 명이 또 참여하고(어차피 한 가지 이상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을 갖고 홀로 고군분투하던 새로운 인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도 양성평등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한두 명이 있어서 최근 몇 해 동안 '양성평등교육을 연구하는 교사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교사나 20~30대 교사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관심이 높은 편이라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40~50대 교사 중에도 자신의 삶과 학교 현장의 오랜 경험 속에서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양성평등하지 않은 학교문화와 양성평등 교육활동에 거부감이 있는 학교 구성원들 속에서 뜻을 함께하는 동행자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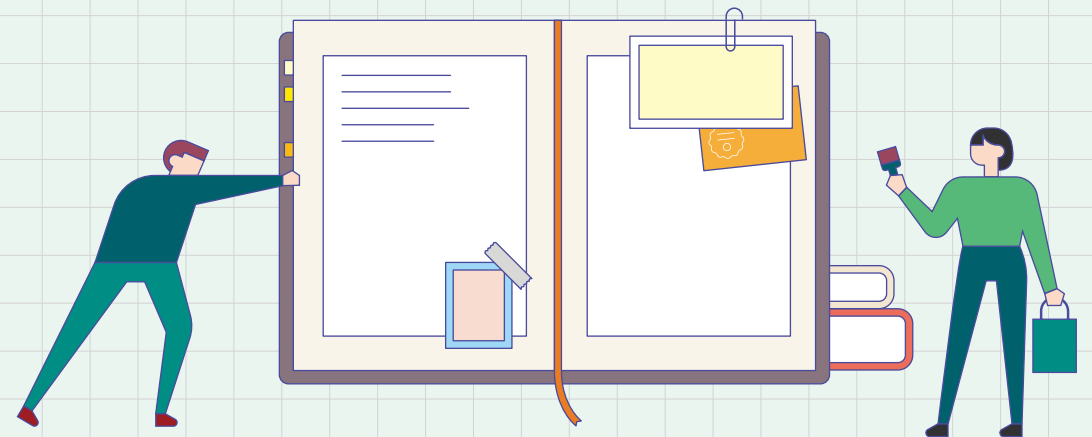
양성평등교육을 연구하는 교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은 학교별 여건과 구성원들의 학습 정도를 가능하여 탄력적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관련 도서를 하나 정하고, 모임 때마다 시의성 있는 토론 주제로 활용하며, 양성평등 교안을 교과별로 만들어 피드백하면서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업 활동도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목표를 과하게 설정하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욕심도 부리지 않으면서 동아리 구성원들의 눈높이와 속도를 적절히 고려하며 운영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일신우일신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사 모임으로 학교 전체를 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동료 한두 명부터라도 변화는 분명 시작됩니다.

모임을 하는 동안 매년 구성원도 바뀌고, 무엇보다 물리적 활동 시간 자체가 부족해 명쾌한 해답은 커녕 오히려 모임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과 교차성으로 고민의 양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로 같은 그 길을 함께하며 교사들의 의지가 한층 더 단단해져 각자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또 다시 교사 모임을 운영할 힘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학생 (자율)동아리까지 운영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초·중학교에서는 여러모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든 양성평등교육 활동이나 관련한 주제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학생 동아리 운영에 의지가 있다면 직접 동아리 지도교사가 되어 이 주제에 관심과 열의가 높은 학생들에게 먼저 활동을 제안해 보고 회원 공개 모집을 통해 (자율)동아리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아리의 특성상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도교사는 학교와 보호자들이 학생들의 동아리 선택을 지지하고 활동 내용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교내 동아리 운영의 여건이 안 된다면, 인권(평등)을 주제로 한 자유학기 수업(주제선택이나 자유학기동아리)으로 개설하여 커리큘럼에 양성평등 주제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양성평등 모임의 활동 계획은 관련 책읽기를 활동의 중심축으로 잡고, 축제 등 학교 행사 기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 도서 소개와 북콘서트, 혐오와 차별의 언행을 개선하는 캠페인 활동, 양성평등 학급규칙 공모전, 다양한 몸매에 대한 존중 캠페인 등입니다. 이는 관련 단체·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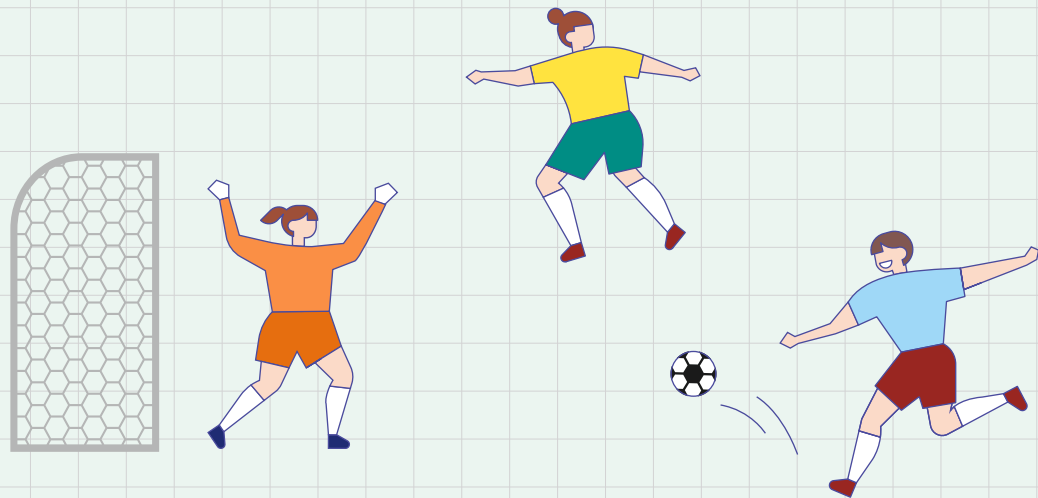
양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일은 아무리 열의가 있는 교사라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학생·교직원·보호자)의 제안과 협의, 동의와 의결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이 길이 많은 이들의 참여와 실천에 의해 움직인다면 분명 즐거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교과서 구석구석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찾기

교수·학습자료를 선정할 때 ‘양성평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성차별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요소가 없는 교수·학습자료를 선택합니다. 교내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부적합한 교과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활용 빈도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는 기본 교재이자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학교가 늘어날수록 성차별적인 교과서 출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선정된 교과서의 내용은 내신 평가 문항에도 반영되므로 결국 입시를 대비한 교육자료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해나 문법을 위주로 공부하는 외국어 지문의 경우, 성차별적인 내용 요소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 내지 못한 채 교과서나 시판 교재에 흔하게 실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교재를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걸러 낼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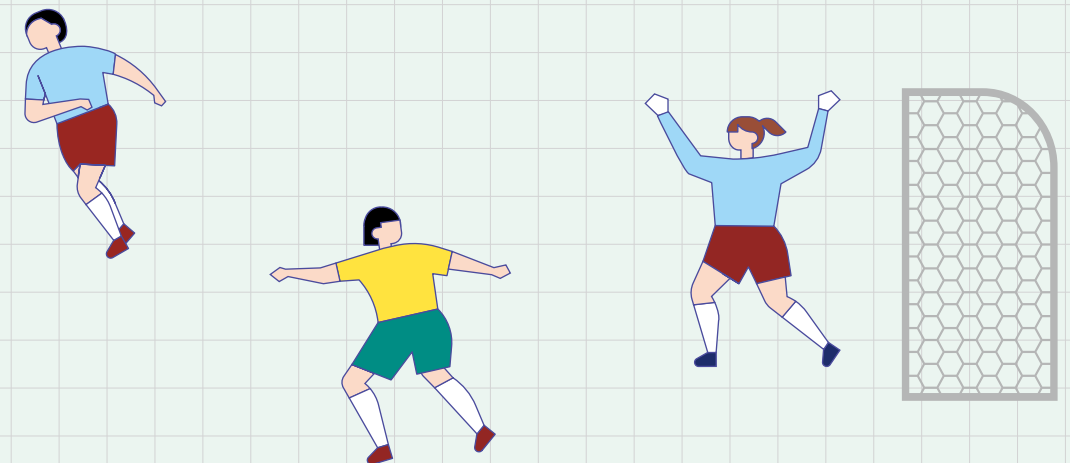
한편, 이런 문제점을 활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찾기라는 수업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의 본문 내용 외에도 늘 무의식적으로 보던 교과서 구석구석(삽화나 색깔, 이미지, 필자의 성비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가장 양성평등하게 제작되었을 거라 믿었던 교과서에 이렇게 많은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에 교사와 학생 모두 함께 놀랐으며, 많은 교과서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수업자료를 얻기 수월했고, 학생들의 이해를 빠르게 돕는 수업이었습니다.



## 체육 활동의 새로운 판짜기, 가능할까?

아마도 신체(운동) 활동을 위주로 하는 체육교과는 특히 성별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성별에 따른 체격이나 체력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성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재 대개의 학교에서는 체육교과를 비롯하여 신체 활동을 주로 하는 교육 활동을 할 때 으레 남녀를 구분하여 신체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체육 교사들이 남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랜덤으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거나, 혹은 성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경기규칙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진행하는 수업을 참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운동 종목에서 소외되었던 학생이 줄어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다수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는데, 시도해 보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클럽은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미 남녀를 구분하여 따로 반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의 경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여학생들은 남학생의 비해 운동을 배우거나 체험할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여학생과 남학생의 운동실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비자발적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전담 지도할 강사를 별도로 배정하여 체육활동(축구, 농구, 요가, 필라테스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재의 실정으로는 어렵다 보니 남녀를 따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아교육기관부터 성별 구분 없는 교육, 특히 동등하게 체육활동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해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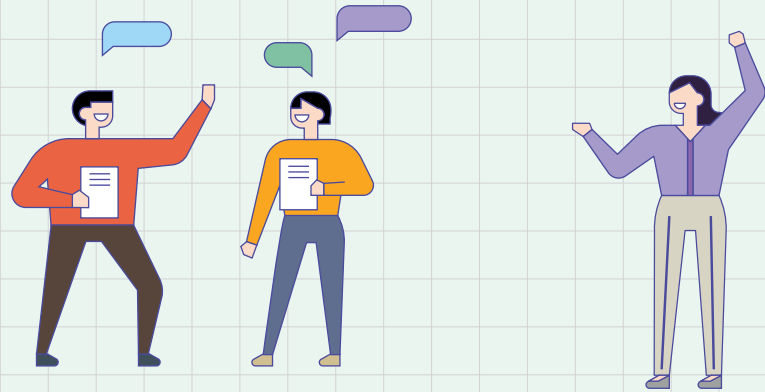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 드라마’

1999년, 기회가 닿아 영국 런던의 뉴몰든(New Malden) 지역에 있는 콤여학교(Coombe girls' school)를 방문하여 4일간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과목제와 교과교실로 운영되는 학교 시스템을 소개받고, 수업 장면을 관찰하며 교사들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참관한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학년에서 필수로 배워야 하는 ‘드라마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정해 주면,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펴서 그 상황을 극으로 연출합니다. 아이들은 드라마 수업에 참여하며 협동의 자세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무대장치까지 되어 있는 교실도 있었습니다. 그곳의 탁 트인 교실 환경과 일상적인 창작 수업이 참 부러웠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입장에 서 보고,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타자의 마음과 행동에 공감하며,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드라마 수업 장면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가 2016~2019년 방과후 진로체험활동(인문사회 캠프)에서 이 수업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고2 남학생들과 1주일간 진행한 인문사회캠프에 ‘공감드라마’ 역할극 발표를 메인 활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수업은 다양한 교과 시간이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이 되어보고, 여학생은 남학생의 입장이 되어보며, 공정한 사회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역할극 주제 나누고 콘티 구성하기

4인 1조로 학생들의 모둠을 구성하고 ‘공감 드라마’의 주제를 나누어 맡게 했습니다. 이 캠프의 취지가 시대를 읽고, 사회적 갈등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주제를 모둠 수대로 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 모둠이 맡을 ‘공감 드라마’ 주제는?(예시)

대주제	모둠별 주제(예시)			
(노동)인권	1. 직장 내 '갑질'	2. 최저 임금 문제	3. 비정규직 문제	4. 예멘 난민
성평등	5. '미투' 운동	6. 직장 내 성희롱	7. 가정 내 성평등	
한반도 평화	8. 북미 관계	9. 남북 관계		

모둠별로 의논을 해서 맡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도록 했고, 여러 모둠이 겹칠 경우 가위바위보를 해서 조정하게 했습니다. 모둠별로 맡은 주제에 대해 신문기사 두 개 정도의 제목을 제시해 주어 콘티 구성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리 국어 선생님과 협의하여 콘티 구성에 관한 간략한 안내 수업과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주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당시 캠프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주제별로 제시한 신문기사 제목(예시)

성평등	5. ‘미투’ 운동	“미투·위드유, 관계 회복 운동이다” 학생 열 명 중 여덟 명 “스쿨 미투,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선생님의 성희롱을 고발합니다’ ... 스쿨 미투 잇따라
	6. 직장 내 성희롱	정신적 후유증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상 재해 추진 OOO 4년 전 성희롱 징계 요청에 “2년 지나 어려워”
	7. 가정 내 성 평등	모성애라는 코르셋 “가사는 누구 몫?” ... 서울 성평등 인식 세대차 뚜렷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서 극에 활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정리해 보도록 했고,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극의 주제, 핵심 줄거리 등을 기획하게 했습니다. 발표 시간을 7~10분 정도로 배정하고 그에 맞는 콘티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A4 용지 1.5~2쪽 내외의 콘티를 작성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콘티를 구성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그렇지 못하다면 과제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제를 줄 때는 콘티의 흐름은 함께 논의하되 정리만 한 명이 하도록 안내하고, 역할극 내 배역의 중요도나 소품, 배경화면 준비 등 모둠원들에게 역할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 콘티 기획하기

우리 모듬이 맡은 주제는?

주제 방향 정하기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모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은 무엇인가? -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콘티를 구성한다.
우리 극의 주된 흐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여 줄 것인가? -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사건의 주된 흐름을 구성한다.
등장인물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보여 주는 데에 꼭 필요한 인물 정해 보기 - 4인을 기본으로 1인 2역이 가능한 경우, 몇 명을 추가할 수 있다.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 정하기 - 교실에서 공연하며, 배경화면은 스크린에 띄울 사진을 미리 준비한다. - 인물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소품이 있다면 간단하게 준비한다.

## 공감을 이끌어 준 드라마 수업

### 공감 드라마 참여 학생 후기

우리 조는 대본을 짤 때는 대본 한 마디 한 마디에 우리가 맡은 사회 문제를 녹이려고 노력했고, 여성의 위치에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짠 대본의 대부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 여성의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를 온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해 봐도 실제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 문제를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 문제의 원인과 문제가 발달하는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은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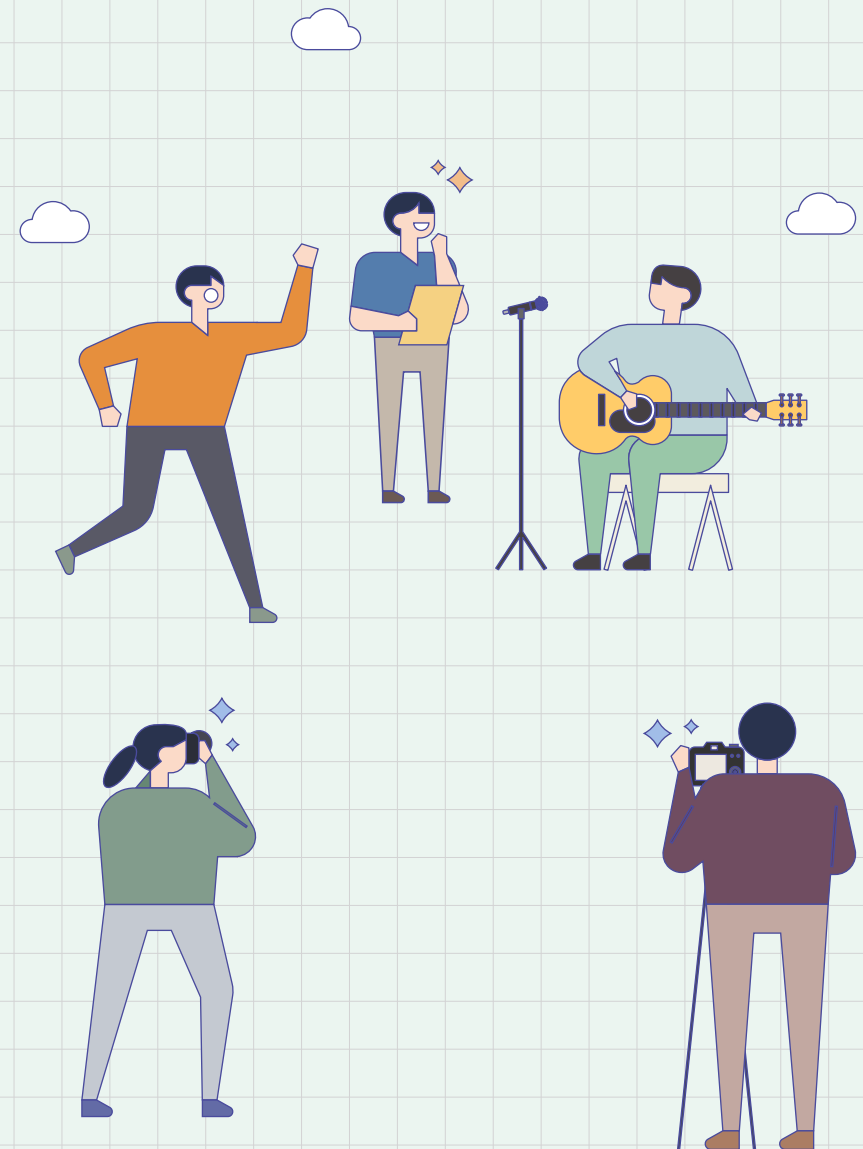
2학년 1반 김○○

역할극을 하면서 학생들은 부분적으로나마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나타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공감 드라마'를 펼치며 연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진지했고, 역동적이었고, 즐거웠으며, 평화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갈등이 빈번하며, 갈등의 속성 자체가 중층적입니다. 따라서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연습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딪히는 갈등 국면에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공감

드라마'라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양성평등 문제도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젊은이와 고령자, 선주민과 이주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인간과 비인간(생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총위로 살펴보면 평등한 세상,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다 보면 문제인식과 해결점에 도달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을 '공감'의 세계로 이끌어 줄 드라마 수업이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 2권 [교과·창의적 체험활동X젠더] 도움자료

### ‘학생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젠더온(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플랫폼)은 양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강의안부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까지. 초·중·고등학교 교과성취기준과 연계한 다양하고 알찬 수업자료가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젠더온-강의자료실에서

교과·창의적 체험활동X젠더 수업을 만들어 보세요!

(교안 PPT, 수업자료PDF, 수업 영상 등)

문의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학교교육부

### ① 초등학교용

학령	구분	제목	내용
공통	수업안내서	주제별 성평등 교육 수업 활용가이드	<자아정체성>편 성별 고정관념, 자기 긍정, 다양성 존중
			<교육·학교>편 또래문화, 진로교육, 성평등한 학급운영
			<가족·친밀성>편 가족 다양성, 가족 내 성역할, 친밀한 관계 내 동의
			<시민성>편 인권, 차이와 다양성,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업 Q&A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SNS, 성폭력 예방교육
저학년	교과연계 강의안	나를 나답게 꾸며요	성별 고정관념, 자기다움
		내가 만드는 우리가족	가족 다양성 존중
		클로에와 스파이더맨 가방	성별 고정관념과 자기다움, 학용품 속 성별 고정관념, 그림책 활용 수업
		미래의 나	양성평등한 진로 교육, 학기 초 적응활동 활용
		놀이로 익히는 양성평등 공동체 감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저학년 놀이 활동 수업 가이드

젠더온  
GENDER ON



학령	구분	제목		내용
저학년	교과연계 강의안	<어린이를 위한 동의 1편>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안내서		동의, 경계존중, 마음의 가치, 마음존중
		<어린이를 위한 동의 2편>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안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양성평등 교육 수업 동영상	클로에와 스파이더맨 가방	[PPT 강의안 활용 영상] 성별 고정관념, 편견, 공감
			내가 만드는 우리 가족	[PPT 강의안 활용 영상] 가족 다양성 존중
고학년	교과연계 강의안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양성평등 진로교육, 과학의날 계기교육(여성발명가)
		집안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가사노동 분담
		3.8 세계 여성의 날 계기교육		여성의 날의 역사, 여성 인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	가장 작은 거인과 가장 큰 난쟁이	[그림책 활용 수업] 다양성 존중, 인권 교육
			분홍 원피스를 입은 소년	[그림책 활용 수업] 성별 고정관념, 차별에 대항하기
			뜨개질하는 소년	[그림책 활용 수업] 성별 고정관념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까		차이와 차별, 평등과 형평성 이해하기
		'외할머니/외할아버지' 단어 속에 고정관념이 있다고요?		언어 속 성차별, 평등한 새말 만들기
		외모평가 멈추기		외모평가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대안 모색
		월급으로 1주일 살아보기 - 가사노동의 가치		가사노동의 가치
		유튜브씨, 질문 있어요! -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미디어 리터러시, 성평등한 유튜브 콘텐츠 체크리스트 만들기

학령	구분	제목		내용	
고학년	교과연계 강의안	갈등의 기술 (1)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소통·관계 맺기 방법, 다양성 존중, 시민성 기르기	
		갈등의 기술 (2) 다양한 감정의 의미			
		갈등의 기술 (3) 너와 나의 욕구 알기			
		나를 위한 옷차림을 하고 싶어요 - 성역할과 외모규범		[미디어비평] 성역할 고정관념, 외모규범	
		나를 말해주는 '또 다른 나' - 우리 주변의 캐릭터		[미디어비평] 캐릭터 속 성역할 고정관념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연극 수업 안내(1) - 여성 독립운동가 만나기		성인지적 교육연극 수업 가이드 - 여성사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연극 수업 안내(2) - 우리 안의 성 고정관념		성인지적 교육연극 수업 가이드 - 성별 고정관념	
		평등한 픽토그램 디자인해보기		픽토그램, 공공표지, 성별 고정관념	
		몸은 몸이다 (1) 몸은 그냥 몸이다		외모평가, 다이어트, 외모꾸밈, 성역할, 성별고정관념	
		몸은 몸이다 (2) 몸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왔을까?			
		몸은 몸이다 (3) 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양성평등 교육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 <뜨개질하는 소년>	[PPT 강의안 활용 영상] 다양성, 존중, 성별고정관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 <가장 작은 거인과 가장 큰 난쟁이>	[PPT 강의안 활용 영상] 다양성, 존중, 인권 교육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PPT 강의안 활용 영상] 양성평등 진로교육, 과학의날 계기교육(여성발명가)
				집안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PPT 강의안 활용 영상] 가사노동 분담
				새로운 가족 호칭을 만들어봐요	[PPT 강의안 활용 영상] 가족 호칭, 성평등 가족 문화

학령	구분	제목		내용
고학년	교과연계 강의안	선생님이 읽어주는 양성평등 미디어교육 수업 동영상	유투브씨, 질문 있어요!	[PPT 강의안 활용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교육, 유투브, SNS, 비대면 교육
			나를 위한 옷차림을 하고 싶어요	
			나를 말해주는 또 다른 나, 우리 주변의 캐릭터	
		<미디어콘텐츠(예능)가 초6에게 미치는 영향>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외모평가, 외모꾸밈, 예능, 성인지감수성
공통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 안내서	①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온 작품 읽기가 만나면?	온 작품 읽기, 성인지 감수성, 어린이 독자
			② 어린이 독자 새롭게 보기	
			③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대화 나누기	
			④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온 작품 읽기 수업, 이것이 궁금해요! 묻고 답하기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 도서 목록 <선생님이 먼저, 함께 읽어요>		온 작품 읽기, 독서지도, 성별고정관념, 성인지 감수성
저학년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책 읽기 '다 다르니까 다 답이다'	나는 나예요 <나도 예민할거야>	성역할 고정관념, 다양성, 다름을 존중
			남이 붙여주는 이름표는 싫어요 <스티커 토끼>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가족과 이웃이 하는 소중한 일 <우리 엄마는 고래를 몰아요>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극복, 일의 소중함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공룡 도시락>	부정적인 감정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도서 목록 <자기 모습 긍정하기>	

학령	구분	제목		내용
저학년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 도서 목록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평등한 관계 맺기, 성별 고정관념, 가족의 다양성, 사회적 약자, 비폭력적 사랑 등
중학년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여자? 남자? 아니,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반대! <말라깽이 챔피언>	성별 고정관념, 다양성 존중
			바람처럼, 새처럼, 망나니 공주처럼 <망나니 공주처럼>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바람을 가르다>, <우리 동네 택견 사부>	성인지 감수성, 차별, 다양성 이해, 인권 존중
			내가 어때서! <도깨울이 어때서!>	다양성 존중, 서로의 나다움 존중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도서 목록 <고정관념 버리기>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 도서 목록 <너와 나의 차이를 넘어서, 더 멋지게!>		고정관념, 의문제기, 동화 다시 보기, 몸 긍정하기, 친밀감 등		
고학년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사례집 '타인을 대하는 열린 태도'	일상 속 나를 보다, 나다움을 찾다 <수상한 아이가 전학왔다>	성별 고정관념, 타인을 존중하는 관계 맺기
			시대를 넘어 공감으로, <몽실언니> 다시 읽기	여성서사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나의 감정과 마주하며 남성, 여성의 고정관념 뛰어넘기 <어느 날 그 애가>, <연우와 나>	성별 고정관념, 연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 안의 편견과 만나기, 있는 그대로의 나 인정하기 <비밀 소원>	차별, 편견, 있는 그대로의 나 긍정하기
	성인지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 도서 목록 <타인을 대하는 열린 태도와 시대와 사회 이해하기>	다양성, 여성서사		

학령	구분	제목	내용
고학년	온 작품 읽기 수업 사례집	성평등 교육을 위한 온 작품 읽기 추천 도서 목록 <서로의 느낌과 마음을 이해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뛰어넘기>	친밀한 관계, 여성서사, 다양성 등

## ② 중고등학교용

학령	과목	제목	내용
중학교	국어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장, 희곡 읽기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 (2)	
		성인지적 고전문학 읽기 - 홍길동전	사회적 차별, 연대, 고전 읽기
	도덕	여자가? 남자가?	혐오 표현, 혐오표현의 해악, 사회적 약자,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1)	다양성, 민주주의, 대표성, 실질적 참정권 보장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2)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가사노동, 성별 불평등,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실천하기
	역사	저출산? 저출생!	저출생, 출산, 육아, 양성평등, 사회적 돌봄
		그때 거기 여성들이 살고 있었다	역사 기록, 역사가의 책무, 여성 위인, 사실/기록으로서의 역사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변화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변화, 전통적 성관념, 고려시대 여성, 조선시대 여성,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다양한 배경, 봉건제 극복
	영어	성인지적 영어동화책 읽기 수업 - Ruby's Wish (1)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영어동화책 읽기
		성인지적 영어동화책 읽기 수업 - Ruby's Wish (2)	

학령	과목	제목	내용
중학교	가정	여자답게? 남자답게? 나답게! 자유롭게!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발달,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가족만들기 : 누구와 어떻게 살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존중, 정상 가정의 이미지
		나를 사랑하는 식생활	다이어트, 마른 몸에 대한 강박, BMI 기준, 건강을 지키는 다이어트, 외모 강박, 굿 미디어, 내추럴 사이즈 모델
		동의를 배워봅시다 : 나와 나 사이 가장 중요한 동의	동의, 경계존중, 2차 가해예방
	체육	남녀 혼성 족구	남녀 혼성 족구, 여학생 체육 활성화
고등학교	국어	허생전 다시 읽기 (1)	허생전, '허생의 처(이남희)', 패러디 장르, 고전문학 읽기, 조선 후기(전쟁)의 여성 인권
		허생전 다시 읽기 (2)	
		허생전 다시 읽기 (3)	
		문학 읽기 수업 : 꿈꾸는 인큐베이터	재생산권, 남아선호현상, 문학 읽기
	독서 토론	성인지적 독서토론 수업 : 맨박스	맨박스, 성역할 고정관념, 독서토론
	통합 사회	전쟁과 평화, 그 속에서의 여성	일본군 '위안부' 논쟁, 전쟁 속 여성 인권, 평화, 젠더사이드
	사회 문화	혐오를 넘어 공존의 사회로 (1)	기본권, 인권, 편견, 차별, 혐오, 교차성
		혐오를 넘어 공존의 사회로 (2)	
	생활과 윤리	청소년의 사랑과 성	청소년의 연애편화, 자본주의적 연애제도
		우리 삶의 폭력, 우리 삶의 평화 (1)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평화
		우리 삶의 폭력, 우리 삶의 평화 (2)	

학령	과목	제목	내용
고등학교	가정	결혼의 가치 탐색하기 (1)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의 개인적·사회적 의미, 결혼문화, 결혼 압박, 결혼 제도
		결혼의 가치 탐색하기 (2)	
		성평등한 가족돌봄생활 1 - 주사위를 굴러라	가족생활교육, 생애주기, 돌봄, 사회적 돌봄, 성평등한 가족문화
	음악	카르멘 (1)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 데이트 폭력, 안전이별
		카르멘 (2)	
		성인지적 음악감상 수업 - 헨델의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카스트라토, 음악사 속 성차별, 차별비용
	체육	성인지적 체육 영화 감상 - 야구소녀 (1)	유리천장, 여성체육 활성화
		성인지적 체육 영화 감상 - 야구소녀 (2)	
		모두가 함께하는 태권도	운동부족,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성역할 고정관념



수업

양성평등수업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발행일	2020년
발행	17개 시도교육청
기획·총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필	이정주 (크리에이티브 다양성센터 대표)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 연구위원)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센터장)  서한솔 (서울상천초등학교 교사) 윤신원 (성남고등학교 교사) 이소현 (안산중앙초등학교 교사) 주윤아 (호평중학교 교사) 한미라 (서울면동초등학교 교장)
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김남숙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이해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
제작	(주)디자인위드

#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